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8년 6월

선교편지 제 111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 진행하는 여러가지 사역 중에서 '성경 암송'이 사역의 중심으로 정착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하고 고심을 하면 할수록, 잘 가르칠 수 없는 형편이 너무 크게 보여서 안타까움이 더 하곤 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재를 구하기도 힘들고, 멀리서 주문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사역은 이러한 부족함이 큰 결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른 먼 곳이 아닌 '성경'에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성경 암송'에 온 교회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 '익핏 예일 교회', '바카카 교회'의 어린이 사역에 '성경 암송'은 너무도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본인의 성경 암송표를 들고 외우기 시작하고, 교사들에게 확인을 받고, 진도표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작은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 온 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비록 연약한 가운데 시작한 '성경 암송'이지만, 아무쪼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 30:5)

그런데 이렇게 '성경 암송'의 중요함을 잘 알면서도, 진작 어른들의 신앙 성장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전교인이 합심하여 '성경 1독'을 하고, 또한 창세기 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개괄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암송' 만큼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까닭은, 전반적으로 공부해 본 경험이 아련할 정도로 학력이 낮아서, '암기'라는 것이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히 불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암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는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어른 주일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과는 달리 좀 더 자유롭게 말씀을 가르치고, 질문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공부하고, 성경1독을 하도록 독려 했는데, 금년에는 어른들의 성경 암송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시범적으로 짧은 구절을 암송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암송을 하고 싶으나, 정말 암송이 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암송이 스트레스나 경쟁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반복하며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한 사람들은 우물 우물 입 안에서만 성경 말씀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매주 거의 20여명이 앞에 나와서 그 중에 암송한 말씀을 암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훈련하는 가운데, 마침내 5월부터 본격적인 성경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영어'와 어른들을 위한 '현지어'로 된 성경 30 요절을 선정하여, 매주 누적하여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하는 어른 주일학교에 성경 암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지만, 꾸준히 참석하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에 암송해야 할 말씀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하고, 10~15분 정도의 시간에 암송을 하게하고, 서로 짝을 지어서 암송하고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에 따라 회중 앞에 혼자 나와서 암송하는 절차를 통해서 완전히 본인의 말씀으로 만들도록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처럼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 Christ the Center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2 Corinthians 5:17	Busa kon ang tawo anaa kang Cristo, siya bag-o nang binuhat; ang daang mga butang nagpangagi na, tan-awa, ang bag-ong mga butang nahiaabut na.
2. Obedience to Christ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Romans 12:1	Busa hangyoon ko kamo, mga igsoon, tungod sa mga kalooy sa Dios, sa pagtugyan sa inyong mga lawas ingon nga halad nga buhi, balaan ug hinangponon sa Dios, ang halad nga mao ang inyong espirituhanong pagsimba.
3. The Word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2 Timothy 3:16	Sa akong unang pangatubang sa hukmanan, walay usa nga mlaban kanako; ang tanan mitalkod kanako. Dili unta kini himoon nga sumbong batok kanila!
4. Prayer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John 15:7	Kon kamo pabilin kanako, ug ang akong mga sulti pabilin kaninyo, pangayo kamog bisan unsa nga inyong gusto, ug kini pagabuhaton alang kaninyo.
5. Fellowship For where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Matthew 18:20	Kay diin gani ang duha kon tulo magakatigum sa akong ngalan, anaa ako sa ilang taliwala."
6. Witnessing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atthew 4:19	Ug siya milingon kanila, "Sumunod kamo kanako, ug himoon ko kamong mga manglingisdag tawo."
7. All Have Sinned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Sanglit nakasala man ang tanan ug nakabsan sa himaya sa Dios,
8. Sin's Penalty	Romans 6:23	Kay ang suhogikan sa sala mao ang kamatayon, apan ang

지난 주에는 나이가 많으신 '인다이' 여 집사님이 회중 앞에서 처음으로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참으로 밝고, 명량한 여 집사님인데, 성경 암송을 시작한 이후로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모두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인다이' 집사님은 성경 암송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에 지난 주에 처음으로 회중 앞에서 성경 암송표에 있는 첫번째 성경 구절을 암송하였습니다. 할렐루야!

Busa kon ang tawo anaa kang Cristo, siya bag-o nang binuhat; ang daang mga butang nagpangagi na, tan-awa, ang bag-ong mga butang nahiaabut na.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전 5:17))

나중에 알고 보니, 한 구절을 암송하기 위하여 거의 3주간을 혼자서 집에서 연습하고, 마침내 회중 앞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암송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암기해보려고 노력 했던 적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암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 잘 외우지 못한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 구박을 많이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회중 전체가 박수를 치며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하셔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암송하는 저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삼하 22:31)



필리핀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될 정도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이제는 1억명이 훨씬 넘어서는 대국의 모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5% 정도인 500만명이 모슬렘으로서, 대부분 저희가 살고 있는 '민다나오 섬'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 40여년간은 모슬렘의 자치 독립을 요구하며 정부와 무력으로 대립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곳에서의 모슬렘들은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이웃이지만, 독특한 복장과 모습으로 일반 주민들과는 구별이 되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년전 이곳에 부임을 했을 당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각국에서 온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한 가정만 남고 대신 그 자리를 모슬렘들이 들어 올 정도로 가까운 주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카카 지역은 이곳에서도 모슬렘 지역으로 인식 될 정도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슬렘 학교, 모슬렘을 위한 마을 자치 단체, 모스크등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고, 모슬렘들이 지키는 각종 절기와 그들만의 예식등이 마을 내에 깊게 스며 있습니다. 새벽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는 방송이 동네를 넘어서 먼 곳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난 소음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이웃으로 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종교가 다른 이웃과는 전혀 섞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모습을 굳건히 지키는 삶의 방식이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이곳에서는 5월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슬람교의 가장 큰 절기인 '라마단 (Ramadan)'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Muhammad)가 계시를 받은 달을 기리는 것으로 이슬람 달력 (히즈라력) 9월에 해당합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는 대부분의 모슬렘들은 낮에는 물과 음식을 먹지않고, 욕망을 누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수행을 하고, 해가 진 뒤에 가족, 친지들과 음식을 먹으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종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여, 모두들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선교사들이 함께 나누는 현지 소식과 기도 제목에도 이 기간중에 '역 라마단 기도'라 하여 모슬렘들이 주 앞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특별한 기간 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슬람 지역에 위치한 '바카카 교회'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그런데 최근들어 바카카 지역에 '정전'이 되는 횡수가 점점 많아져서 마을 주민들의 불평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 정전이 되는데, 그 정전의 원인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집 때문에 과부하가 생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각 집마다 전기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일까지 벌여 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이, 각 집에 별도로 전기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약 10~12 가정이 한개의 공동 전기 미터에 연결되어 나누어 쓰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는 '바카카 교회'도 자체 건물이 아니고, 매월 월세와 더불어 1/12에 해당하는 전기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형편 이었습니다. 실내가 어두운 까닭에 매일 낮에도 사역을 위해서 형광등을 켜고 있고, 4대의 선풍기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새로 부임한 현지인 사역자가 그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전기 밥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마침내 마을 대표가 동네의 모든 집들을 방문하여 전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중에, 놀랍게도 '바카카 교회'는 전기 점검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마을 주민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 하는 중에, '바카카 교회'는 마을 어린이들을 잘 돌보아 주고 있고, 교회 주변도 항상 깨끗이 청소하기 때문에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전기를 많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카카 교회'가 마을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마을 사람들의 불평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도리어 '바카카 교회'가 마을의 유익을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로서는 '바카카 교회'가 일반 가정집 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월 지불했던 전기료의 두 배를 지불하기로 하고, 또한 전기 밥솥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잘 해결된 이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 밥솥도 사용하지 않고, 전등이나 선풍기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정전'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모양입니다.

'바카카 교회'에 모슬렘 아이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근처에 오지도 않던 아이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약하고, 예민한 이곳에 '바카카 교회'를 세우신 까닭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슬렘 지역에 세워진 '바카카 교회'가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Account No.: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76 1st St. Apt 1K / Mineola, NY 11501-2366

